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조절

군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20일~5월 5일, 행정지도·집회금지·차별 등 탄력적 적용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도를 조절했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기에 맞춰 거리두기의 효과, 감염확산 위험도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절을 실시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방역 성과가 나타났지만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망이 느슨해지면 감염의 재확산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또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되, 필수적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

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은 운영중단에서 운영자체 권고로 조정되며 방역지침 준수는 현행처럼 유지된다.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는 행정지도, 집회금지 및 차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총 16일이다.

정부는 매 2주마다 평가를 통해 거리두기 조절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된다"면서 "거리두기 조절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장기간 감염억제를 위한 조기발견·확산방지 등 촘촘한 국가방역체계유지를 위한 조치이니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손님맞이 봄철 대청소”

코로나 이후 관광 붐 대비 주문 미세먼지·악취저감 총력 당부

익산시가 코로나19이후 국면에 대비해 봄철 대청소 등 본격 손님맞이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0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2주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5월 5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선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코로나를 털어내는 기본으로 다 함께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 봄은 익산시 관광에 기대가 많았던 시기였는데, 코로나19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큼 그 동안 준비 기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익산관광의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헌율 시장은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현재 악취 관련 신고건수와 악취 측정기상 테이

터 측정값의 초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미세먼지도 수치상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행정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방역과 함께 60여개의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건강하고 무탈하게 근무해 달라”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 신동지구대, 장애인 등 약자 보호 치안 활동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신동지구대는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성치안 행정력 발휘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주

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신동지구대는 봄이 불췌해 경찰관서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 성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과 관

련된 금품한 사함에 정성담은 이야기 식 설명과 해결로 도움을 전개(사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행정 서비스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송태석 지구대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성재 서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섬세한 관심과 보호에 앞장서 보다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사)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지부장 김현섭)는 20일 지역사회 이웃돕기로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 등 어려운 이웃에 전해 달라고 군산시에 한돈(돼지고기) 2.5톤(2,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코로나 극복” 군산지역 이웃사랑 훈훈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서수초교·서해로타리클럽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사랑이 넘쳐나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군산시는 (사)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지부장 김현섭)가 지역사회 이웃돕기로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 등 어려운 이웃에 전해 달라며, 한돈(돼지고기) 2.5톤(2,000만원 상당)을 20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웃사랑 나눔 행사는 최근 코로나19로 한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소외계층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자는 한돈 농가의 의견이 모여져 진행했다.

김현섭 군산지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나누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을 찾아 사랑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잊지 않고 찾아주는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특히,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품을 꾸준히 기탁하며 작년에만 총 4천만원 상당의 한돈을 기탁하는 등 서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같은 날 서수초등학교(교장 김신철)에서도 코로나 이웃돕기 성금 101만원을 전달했다.

김신철 서수초교장은 “코로나로 전국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 군산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나눔이 넘치는 학교로서 학생들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서해로타리클럽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보정기를 지원하는 등 군산시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성금·품 기부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전달된 성금·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되어 군산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고향이 보인다” 짬뽕의 도시 군산편 23일 방영

군산 짬뽕특화사업 다시 속도

군산의 대표 음식인 짬뽕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군산 짬뽕특화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짬뽕특화거리 입점자 지원을 위한 위생용품 및 영업장 운영지원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입점자 모집 실패로 주춤했던 사업을 다시 활성화 시키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짬뽕특화거리를 무대로 관광객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짬뽕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군산짬뽕 맛집과 관광명소를 활용한 JTV-전주방송 ‘고향이 보인다’가 오는 23일 방영 될 예정으로 군산 짬뽕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숙자 위생행정과장은 “짬뽕의 도시 군산이 지속적으로 언론과 방송에 소개되고 있는 만큼 짬뽕특화거리 입점자가 늘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짬뽕특화사업이 성공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20일 제22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조례 개정 등 2건의 조례안과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약 345억원으로, 소득부진형 재난기본소득 285억원,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 60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운영속 의원의 ‘익산시 회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으로, 익산시 거주 회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립회귀질환센터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강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을 의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원광대 2년차 사업 수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시민교육사업단이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 1차 사업 운영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10% 증액된 연 2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년차 사업을 수행한다.

원광대는 2019년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에 전국 사범대학 중 유일하게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돼 거점대학 역할과 함께 일반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20학년도에는 연구중심대학 사업으로 전국의 사범대학 시민교육사업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중등학교 및 교육청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